

설문대할망과 여신 신앙

14·15일 제주돌문화공원서 설문대할망제

등록 : 2010년 05월 12일 (수) 17:01:20
최종수정 : 2010년 05월 12일 (수) 17:01:2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지난해 열린 설문대할망제 모습

2010 설문대할망제가 14·15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설문대할망과 바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 앞에서 길트기와 몸짓굿(마임 아티스트 조성진) 등 앞굿과 본굿, 소원굿(극단 꼭두광대)으로 꾸러지는 뒷굿이 2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이중 본굿은 9명의 여제관(허영선 민예총 전 지부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김현숙 돌문화공원 이사 고안나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대표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요텐 아카데미 재제주일본국총영사 부인 차인회 대표 여중생 대표 잠녀 대표 등)의 헌화 헌사(獻辭)·헌곡(獻穀)·헌다(獻茶) 등으로 꾸러진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에서 '설문대할망과 바다 세미나'가 진행된다.

설문대할망에서 출발해 제주와 주변의 여신 신앙을 살펴볼게 될 이날 세미나에는 △설문대·선문대·설명두·세명 뒤 어휘의 비교 고찰 △현대문학에 수용된 설문대할망 이야기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의 축제 가능성 △남해안의 거녀신화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해양신앙 △태평양의 해양민속과 여성신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설문대할망 그림그리기 마당이 '설문대할망 구연동화 듣고 상상화 그리기' '제주돌문화공원 풍경 그리기' 주제로 열린다.

14~15일에 걸쳐 소원탑 쌓기와 민속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의=710-7731.